

옛 난리와 다가올 난리

Old Disasters & the Coming One

누가복음 17:26-3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9월 4일 설교

²⁶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²⁷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²⁸또 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²⁹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³⁰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물난리 불난리

지난 주간 한바탕 난리를 치렀습니다. 허리케인이 온다 해서 예배도 못 드렸는데 정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온 집도 많았고 나무가 많이 넘어져 길을 막는 바람에 그리니치는 아이들 개학도 한 주간 늦추어졌습니다. 비바람이 예상보다 약해서 다행이었다 하는데도 이 정도였으니 만약 예상대로 닥쳤더라면 정말 큰 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큰 일을 보통 난리라고 부르지요. 난리는 일상과 반대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난리, 큰 불이 나면 불난리가 됩니다. 그냥 난리 하면 전쟁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난리가 많았습니다만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노아 때 있었던 홍수일 겁니다. 인류가 아직 한 지역에 모여 살 무렵 계속 죄를 짓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덮어 사람이든 동물이든 숨 쉬는 건 다 죽이시고 노아의 여덟 식구하고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려두셨습니다. 지구상 거의 대부분 민족이 오랜 옛날에 큰 물난리가 있었다 하는 이른바 홍수설화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오래 전 있었던 그 사건을 제 민족 형편에 맞게 고쳐서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는 셈이지요.

불난리 가운데서는 룯 시대에 있었던 게 제법 유명합니다. 이 건 온 세상을 덮은 건 아니고 소돔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몇 마을만 겪은 난리였기 때문에 불난리 설화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난리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첨단과학 어찌고저찌고 하지만 이런 난리 통에 기껏 한다는 게 구경하는 겁니다. 물론 우주에서 본 구름 모습을 안방에 앉아 구경하는 거니까 대단하긴 하지요. 하지만 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을 안 가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느낌과 동시에 또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난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난리를 겪었으니까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먼저 생각이 나고, 또 주님이 룯 시대에 있었던 불난리를 노아 시대의 물난리와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돔성이 받은 심판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날을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어느새 방향을 바꾸어 미래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 심판이나 룯 시대 심판이 온 우주의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노아와 룯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신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은 온 우주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요 그 때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요? 주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산 사람은 그 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고 주 예수를 모른 채 자기 욕심만 좇아 살던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지난날 있었던 큰 난리 때와 비슷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온고이지신, 옛날을 잘 살펴 새 것도 깨닫습니다. 노아 때에 온 세상을 덮은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었고 룯 때에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럴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날 현상도 똑같다 하십니다. 노아 시대 홍수와 롯 시대 불이 엄청난 난리라는 점에서도 주님의 재림과 같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도 똑같다고 하십니다.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는 건 일상생활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남들은 안 하는 나쁜 짓도 아니고 나만 하는 착한 일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입니다.

롯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도 롯 시대도 우리 시대도 사람은 먹고 마십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사고 파는 것도 일상생활입니다. 곡식이 나 나무를 심는 것도 그렇고 집을 짓는 것도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사람 되어 살려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노아 시대도 또 롯 시대도 이어졌고 지금 이 순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똑같은 것입니다.

갑자기 난리가

그런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노아 시대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닥쳤습니다. 홍수가 날 거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무슨 홍수입니까? 게다가 저렇게 높은 산도 많은데 비가 많이 오면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뜬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대신 열심히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닥쳤습니다. 물이 쏟아지는데 이걸 듣도 보도 못하던 물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하늘에 구멍이 났나 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하늘에 정말 구멍이 났습니다. 하늘 창문들이 열렸다 했으니 구멍도 큼직한 게 여러 개가 뚫려 그리 물이 쏟아졌습니다.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했는데 깊음은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닷물도 밀려왔습니다. 이번 우리가 겪은 물난리도 바닷물이 가장 높은 한사리 때 비가 와 더 심했다고 하는데 쓰나미에 홍수까지 났으니 말이 아니지요.

롯 시대는 더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소돔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았습니다. 소돔 주변은 물이 많아서 땅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창 13:10). 모두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너른 땅에 농사를 지어 많이들 쌓아 두었을 겁니다 (눅 12:13-21). 물질이 풍요하니 집도 잘 지어졌지요. 경제가 발달한 도시였으니 거래도 활발했을 겁니다. 다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벼락이 내렸습니다. 비는 그래도 전에 보았던 거지만 불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화산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던 걸 곧장 겪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곤히 잠을 자다가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신 29:23). 도망가면 된다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 구름이 끼기 시작했겠지요? 그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밤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별건 덩어리가 보이면 이미 늦은 겁니다.

롯의 시대

갑자기 닥친 난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를 거듭하는 인간들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신 겁니다. 노아 시대와 롯 시대에 있었던 난리는 갑자기 닥쳤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는 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벌주시고 또 우리를 포함한 후대 사람들에게 너희도 조심해야 된다 하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였는지 그건 롯 시대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성 사람들의 죄악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모양을 하시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집에서 잔치를 하신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두 천사는 소돔 성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마을 지도자가 되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들을 보고 엎드려 절한 다음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천사를 알아보아 그런 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그만큼 극진했습니다. 천사가 그냥 길에서 자겠다 하고 사양했지만 롯은 강권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자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권했던 것 같습니다. 두 천사가 그렇게 해서 롯 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소돔 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도 아니고 불난리도 아니고 정육의 난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롯의 집 주변에 모였는데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할 것 없이 온 동네 남자가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두 사람을 내놓으라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을 강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다는 거니 입에 담기도 거북합니다만 동성간간을 하겠다는 거지요?

롯은 혼자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제발 나쁜 짓은 하지 말라 달라 했습니다. 대신 자기 딸 둘을 내줄 터이니 딸들을 강간하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 요구하면서 집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천사들이 롯을 집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얼른 식구들을 다 모아 성을 떠나라 했습니다. 롯이 두 딸과 정혼한 약혼자들을 찾아가 이야기했더니 약혼자들 반응이 어땠지요? 우리 장인어른 농담도 잘 하시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하고 롯의 아내 그리고 딸 둘만 천사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롯이 성을 벗어나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마을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죄악 된 삶

주님이 노아 시대 사람이냐 롯 시대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씀은 안 하셨다 그랬지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심고 집 짓고 하던 그 현장으로 가 보니까 사는 게 온통 죄악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고 마시는데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 다 죄악이었습니다. 일상이 곧 죄였습니다.

소돔은 무엇보다 사랑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사실 다 죄지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했는데 소돔 사람들은 난폭하고 무례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보면 그 문화를 알 수 있는데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보자마자 탐욕이 발동했습니다. 탐욕 가운데서도 성적인 탐욕이 참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온 성이, 그것도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달려들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집단으로, 동성 강간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사람을, 그것도 아는 사람보다 더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손님을, 내 탐욕을 충족시킬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은 없던 반면 섹스는 넘쳤습니다. 부부의 연합을 위해 주신 게 성인데 그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만 보면 성이 타락합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을 즐기는 간음이 타락의 출발점이라면 그런 타락이 갈 데까지 가 마지막 닿는 곳은 동성연애입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건데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그런 타락의 밑바탕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성이 깔려 있다 하였습니다 (롬 1:18-27).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게 바로 동성연애라는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천사가 이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인데 영적인 눈은 그 전부터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멀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탐하는 탐욕도 있지만 그런 탐욕은 돈을 탐하는 물질적인 탐욕과 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처럼 타락했다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구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멸시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은 그런 죄라 하였습니다 (사 1:10, 17).

롯의 한계

그런 소돔에서 롯은 나름 바르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마음도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벧후 2:7-8). 성문에 앉은 걸 보면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겸손도 있었고 나그네를 집에 모실 만큼 사랑도 알았고 또 내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롯도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경건도 반쪽짜리 경건이었습니다. 손님 대신 내 딸을 강간하시오 하고 제안한 것은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 다른 악을 쓴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하고 목숨을 걸고 막아야 했지만 간음이나 강간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곳에 살다 보니 롯도 둔해질 대로 둔해졌습니다. 이성 강간이 동성 강간보다는 더 작은 죄라고 생각한 것 같고 또 딸은 식구니까 손님을 겁탈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딸은 아버지인 자기가 내주면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위는 더했습니다. 소돔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니 당연하지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이라 하면서 얼른 같이 피하자 한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롯방귀를 한 번 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롯이 밤을 새워 설득했는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동이 터 오자 천사가 롯에게 그만 하고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 식구의 손을 잡아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롯의 아내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소개하지는 않습니다만 롯이 소돔으로 갈 때 총각이었으니까 십중팔구 소돔 처녀였을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도망가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

하고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 망해버린 참 미련한 여인입니다 (눅 17:32).

롯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자기 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성 경험이 없다 했는데 나중에 두 딸이 한 일을 보면 정말 이성을 몰랐는지 의심이 갑니다. 롯과 두 딸이 소돔 성에서 도망한 다음 산에 있는 동굴로 가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딸 둘이 짜고는 아버지한테 술을 먹인 다음 근친상간의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못 하게 할 줄 알았으니 딸들도 그게 나쁜 짓인 줄은 알았습니다. 핑계를 대는데,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자가 죽었으니 더 결혼하기도 어렵고 또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 하면서 근친상간을 한 것입니다. 할 일 안 할 일일 분간을 못 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가 양육을 열심히 했지만 소돔에서 태어나 자란 딸이니 그 성의 거센 물결은 이겨내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대

노아 시대, 롯 시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죄악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물로 또 불로 심판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쳤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면서 주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재림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평범하게 살아갈 때, 그러나 그 먹고 마시는 게 죄와 뒤엉켜, 사는 게 온통 죄악일 때,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오실 거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먹고 마십니다. 옛 사람들이 곡식을 심은 것처럼 우리는 아침마다 출근을 합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면 퇴근합니다. 우리도 집도 짓고 차도 사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들고 물건도 사고 팔고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도 사는 게 죄하고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 성에서 보던 죄가 우리 시대에도 넘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얼마나 많이 번졌는지 이제는 동성끼리 합법적으로 결혼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이루는 게 가정이란 하면 못 배운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는 배반하고 또 배반당하면서 울고불고 합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강간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의 성 윤리는 남녀 구분도 없고 나이도 없고 배우자가 있고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너하고 내가 좋다 하면 다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이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졌습니다. 두 해 전 유타에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지요? 며칠 전 그 여자의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며느리하고 자기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하고 밝히는데 세상에 그 사람 얼굴이 두꺼운 건지 세상이 그렇게 두꺼워진 건지 환하게 웃으면서 무슨 처녀총각 연애한 이야기처럼 떠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사는 한 건 올렸다 싶은지 그걸 또 아침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집단 강간하겠다 하던 소돔하고 뭐가 다릅니까?

돈도 그렇지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만인데 이 미국의 부자들은 사치와 낭비로 졸부 노릇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이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있으면 그렇게 사치해야 되는 줄 압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꼴이 깊어만 갑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세상, 내 배만 위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말세의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횡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딤후 3:1-4).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재앙을 만날 때 누구 죄 때문이다 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다 죄에서 오는 게 맞고 재앙은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큰 심판의 날임을 일깨워주고, 더 늦기 전에, 울부짖으며 절망하기 전에, 얼른 정신 차리라 경고하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주신 교훈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방주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는 방주로 달려온 사람도 많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

다. 소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한 롯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롯의 사위 둘은 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해 주시려고 장인을 보내 밤을 새워 설득하게 하셨는데도 끝내 그 말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동이 터 오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질 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홍수가 날 때까지,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까지, 세상은 아무 일 없던 듯 조용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푸른데 어디 비가 오겠습니까? 지난 번 허리케인이 오기 이틀 전처럼, 말로는 온다 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도, 제가 사는 그리니치는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조차 안 불어서 제 큰아이하고 배드민턴도 다른 때보다 더 신나게 쳤습니다. 그렇지만 올 줄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일기예보를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롯은 아예 천사를 보내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사랑을 전하시면서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소돔 성 사람들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 어리석음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죄로 범벅이 된 일상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 개인의 죄악도 크고, 사회에도 죄가 가득합니다.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탐욕,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 롯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여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빗방울이 듣기 시작하면, 불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성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도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순결하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멸망한다는 분명한 사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소돔 성에 살던 롯처럼 많이 둔해지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허리케인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경고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눅 21:36). 아멘! (권수경 목사)